한한령 해빙무드…이다해, 다시찾은 미소

작년 촬영 마친 '나의 여신, 나의 어머니'
한중 화해분위기 타고 내년 방송 결정
드라마 제작사도 프로모션 일정 문의

연기자 이다해가 '사드 해빙기'를 맞아 기지개를 활짝 펴게 됐다.

5일 한 중국 에이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다해가 주연을 맡아 지난해 9월 촬영을 마친 중국드라마 '나의 여신, 나의 어머니'가 내년 방송할 전망이다. 현지 제작사가 방송 편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이다해 측 관계자도 이날 "드라마 제작사가 최근 현지 프로모션 관련 등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드라마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한한령'의 직격탄을 맞으며 방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나의 여신, 나의 어머니'의 내년 방송 결정은 10월31일 한국과 중국이 모든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개선하기로 합의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다해 측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 여파로 1년 이상 방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금씩 풀리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의 여신, 나의 어머니' 측은 촬영을 끝내고도 1년 이상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 아이치이 등 중국 동영상 사이트의 한국드라마 방영이 암묵적으로 금지되는 등 '한한령'의 여파가 워낙 커 제작사 측은 방송사에 편성 문의를 제안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관해 합의하면서 이 같은 어려움은 이른 시기에 줄어들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현지 관계자들은 더욱 폭넓은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한한령 해빙 모드'는 10월 가수 비를 모델로 한 화장품 광고가 현지 전파를 타면서 그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이다해가 안방극장에 가세한다면 중국 한류가 제 모습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한류스타 이다해가 중국에서 다시 날아오른다. 지난해 주연을 맡고 촬영을 마친 중국드라마 '나의 여신, 어머니'가 내년 현지에서 방송된다. 스포츠동아DB

김창훈(왼쪽)과 형 김창완.

'산울림' 김창훈, 형 김창완을 노래하다

새로 결성한 밴드 '김창훈과 블랙스톤즈'
1집 앨범 '김창완'…형에 대한 사랑 가득

형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은 60년 가까이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형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저 동생 눈에는 형이 "신기한 표정을 하고 오묘한 생각을 하는, 알 수 없는 사람"이다.

형제 그룹 산울림의 멤버 김창훈(61)이 형이자 가수 김창완에 대해 노래했다. 김창훈이 산울림 이후 새롭게 결성한 록 밴드 '김창훈과 블랙스톤즈'라는 이름으로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그 제목을 '김창완'이라 지었다. 타이틀곡도 '김창완'이다.

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 김창완의 모습을 담았다. '누군지 모르겠다' '괴짜 같은 사람'이라는 가사에 형에 대한 동생의 사랑을 듬뿍 새겨 넣었다.

김창훈은 타이틀곡 '김창완' 외에도 수록곡 9곡 모두 작사, 작곡했다. 그를 도와 기타리스트 유병열이 편곡과 프로듀싱을 맡았다. 수록곡 하나하나, 김창훈의 담백한 가사와 멜로디가 돋보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세상의 화합을 그린 노래 '첫 사랑 광주야'는 국악과 록을 접목해 신선함을 안긴다. '시간여행 걸그룹'으로 통하는 3인조 여성 보컬 바버렛츠와 함께 부른 '러브 신드롬'을 통해서는 복고풍의 멜로디를 잘 살렸다.

김창훈과 블랙스톤즈는 신곡 홍보를 위해 각종 방송 출연은 물론 전국 투어에 나선다. 6월 김창훈의 음악을 재조명해 만든 0집 '황무지'를 발표하고 투어에 돌입했던 이들은 이번에도 전국 곳곳을 찾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박찬욱은 영국으로, 김용화는 미국으로…

한국영화 대표감독들 새로운 도전

박찬욱 BBC 6부작드라마 1월부터 촬영
김용화 '프로디걸' 연출…할리우드 노크
봉준호 국내서 신작 '기생충' 촬영 채비

박찬욱 감독

김용화 감독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은 영국으로, 김용화 감독은 미국으로 날아가고, 한동안 글로벌 프로젝트에 주력해온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로 리턴한다. 한국영화를 대표할 만한 감독들이 세계를 무대삼아 새롭고도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욱 감독이 영국 방송사 BBC의 6부작 드라마 '더 리틀 드러머 걸' 연출을 맡아 내년 1월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앞서 니콜 키드먼 주연의 '스토커'를 통해 할리우드를 경험한 감독은 이번에는 전통성이 강한 영국 BBC로 향한다.

박찬욱 감독의 BBC 드라마 연출은 5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 보도로 알려졌다. '더 리틀 드러머 걸'은 1983년 나온 스파이 소설이 원작이다. 이중첩자가 된 한 여성이 영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을 넘나들며 겪는 이야기다.

김민희·김태리 주연의 '아가씨'와 김옥빈의 '박쥐'는 물론 '스토커'까지 그동안 여성 이야기에 주력해온 박찬욱 감독은 영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번 드라마에서도 여성을 내세운다. 주연은 영국 여배우 플로렌스 퓨가 맡았다. 올해 8월 개봉한 영화 '레이디 맥베스'의 여주인공으로, 탁월한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다.

뭉클한 가족애를 바탕에 둔 상업영화로 잇따라 흥행 성과를 내온 김용화 감독은 그 개성을 앞세워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부성애를 중심으로 하는 히어로무비 '프로디걸' 연출을 맡는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의 흥행에 이어 12월20일 300억 대작 '신과 함께'를 내놓는 김용화 감독은 막판 후반작업에 한창인 상황. 내년 여름 '신과 함께' 후속편 개봉까지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2019년 개봉을 목표로 '프로디걸' 작업에도 돌입한다.

김용화 감독이 할리우드의 히어로 무비 전문가들과 손잡은 사실 역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프로디걸'은 '어벤져스', '아이언맨' 등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에 참여한 스탠 리의 제작사 파우엔터테인먼트와 루카프로덕션의 작품이다.

김용화 감독은 "연출 제안을 받았을 때 한국은 물론 글로벌까지 관통하는 부성애의 정서를 담은 영화라 감명 깊었다"며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할리우드 히어로 무비의 방향성을 두고 스탠 리와 많은 부분 공감했다"고 새로운 작업에 기대를 드러냈다.

최근 '옥자'와 그보다 앞선 '설국열차'까지 미국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집중해온 봉준호 감독은 한국으로 돌아온다. 내년 초 촬영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인 영화 '기생충'이 그의 신작이다.

봉준호 감독이 국내 자본과 배우로 채우는 한국영화를 연출하기는 2009년 '마더' 이후 8년 만이다. '기생충'은 네 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한 가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로, 송강호가 주연을 맡는다. 제작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아이돌 스타 나나, 스크린 영토확장

22일 개봉 '꾼'서 유지태·현빈과 호흡
윤아·설현 이은 '연기돌' 탄생에 관심

걸그룹 멤버이자 아이돌 스타들이 연기자로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면서 잇따라 스크린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소녀시대 윤아와 AOA의 설현에 이어 이번에는 나나가 그 주역으로 나선다.

그룹 애프터스쿨의 나나가 22일 개봉하는 영화 '꾼'(감독 장창원·제작 영화사두둥)으로 스크린에 데뷔한다.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굿와이프'를 통해 연기자의 가능성을 증명한 덕분에 스크린으로 직행했다.

'꾼'에서 나나는 현빈, 유지태, 배성우 등 베테랑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영화는 희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통쾌한 한판승을 다룬다. 관객이 편안하게 즐길 만한 오락영화인만큼 나나 역시 부담을 덜었다.

제작진은 실제 대중으로부터 각광받는 나나의 매력을 영화에서도 적극 활용했다. 사기꾼을 잡으려는 팀의 일원으로 나서는 그는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로 설정돼 있다.

영화 '꾼'에 출연한 나나. 사진제공 | 영화사 두둥

나나의 도전은 앞서 성과를 낸 윤아와 설현의 뒤를 잇는다는 사실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윤아는 1월 개봉한 '공조'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해 시작부터 78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하며 흥행을 맛봤다. 무엇보다 코미디 연기를 능청스럽게 소화하면서 관객에게 새로운 매력을 각인시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설현 역시 스크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9월 설경구, 김남길과 함께 한 스릴러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연기력을 드러내며 제 몫을 해냈다. 영화 제작진의 신임을 얻은 덕분에 향후 스크린에서 더 활발한 활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나나 역시 윤아, 설현과 마찬가지로 경험 많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리스크를 줄인 전략으로도 눈길을 모은다. '꾼'은 주연진은 물론 조연 배우들까지 영화에서 활약해온 개성파들로 꾸렸다. 이들과 어우러진 나나는 "베테랑 선배들 덕분에 긴장하지 않았다"며 "편안하게 연기하면서 선배들의 애드리브까지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나를 향한 영화계의 기대는 이미 높아진 상황이다. 그를 캐스팅하려는 영화 제작진이 건넨 몇 편의 시나리오가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이해리 기자

숫자뉴스

4시간

가수 아이유가 3일 오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2017 투어 콘서트-팔레트'를 열고 관객과 만났다.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돌입하는 아이유는 이날 장장 4시간에 걸쳐 공연을 선사했다. "2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는 아이유는 팬들의 열띤 환호에 잇단 앙코르 곡으로 보답했다.

#해시태그 컷

송혜교 '행복한 허니문'

행복에 빠진 새신부의 모습이다. 10월의 마지막 날 송중기와 결혼한 송혜교가 사랑스러운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현재 스페인에서 신혼여행 중이다. 송중기는 사진 속에 없지만, 송혜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이로 보인다. 송혜교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새신랑에게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는 듯한 모습과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짝이는 결혼반지로 눈길을 끈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송혜교 #송중기 #신혼여행 #키스미달링

이해리의 사사로운 이야기

집때문에 속타는 현실 연예인은 딴세상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요즘 온통 집 생각뿐이다. 돌아서면 오르는 아파트 시세도 시세이지만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정책이며 은행의 금리인상까지 고려하면 형편에 맞는 곳을 선별하고 최적의 조건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근처 부동산이라도 찾아가 속성과외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이제 결혼 4년차. 슬슬 아파트 매매를 시도해 볼까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는 족족 떨어지고, 그때마다 '부양가족이 없어서 그렇다', '경쟁률 높은 곳만 골라 넣어 그렇다' 등등, 갖가지 분석을 비슷한 시기 결혼한 친구들과 꺼내놓기 바쁘다. 어쨌든 집 구하는 일은 어렵다는 말이다.

머리에 집 생각이 꽉 차서인지 얼마 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보다가 순간 '감정이입'이 되고 말았다.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 저마다 목적을 갖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 가족의 모습을 한 두 해 본 것도 아닌데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배려 없는 출연진과 제작진의 태도에 화까지 나려고 했다. 자격지심인가 싶어 한참 돌아봤지만, 그날 방송은 좀 심했다.

방송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연기자 강경준과 장신영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왔다. 두 사람이 신혼집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8억원에서 10억원 사이. 각자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예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까진 두 사람의 '여유'가 살짝 부러웠다. 알차게 많이 모았구나 싶었다.

문제는 그 뒤. 이들이 정작 마음에 든 집의 매매가는 18억원 정도. 자녀 학군, 집의 위치 등 전부 마음에 들어 했지만 예산을 훨씬 웃도는 매매가를 접한 두 사람이 부족한 돈 때문에 못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다.

내 눈에는 크게 좌절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요즘 집 구할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출산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자동반사적으로 머리를 스쳤다. 나 혼자 '오버'하나 싶어 그날 방송을 다룬 기사들의 댓글 창을 열어봤다. 두 사람의 모습을 두고 그야말로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작진보다 누리꾼이 더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며, 세대 공감을 이루고 있었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ofl1024@donga.com